



Web Contents



2024년 05월 06일 11시 11분

연극수업 꿈다락 고현진

2015.08.26 조회수 110 등록자 이강휘

친구들과 언니들과 동생들과 함께한 연극수업

저랑찌렁 울리는 선생님 목소리에 깜짝깜짝 놀라 수업을 시작한지 엇그제 같은데 수업이 벌써 끝나버렸다.

멋진 연극 선생님 수업 너무너무 즐겁고 그림그리는 것 역할놀이 즐거웠습니다.

간식 챙겨 주시는 이쁜 코디님 감사합니다

목포부설초등학교 4학년 고현진

글쓰기

목록

이전글

아쉬운 연극수업을 마치며

다음글

아쉬운 연극수업 고승현

MokPo - Si
Web Contents

